

한국 축구, 아시안컵 우승 정조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을 확정했다.

지난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서울 용산 CGV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나설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필두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등 주요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됐다. 김영권과 조현우(이상 울산HD FC), 문선민, 김진수(이상 전북현대) 등 11명 국내파도 발탁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이날 명단 발표와 함께 "좋은 성적으로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우승을 원하는지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다."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예상을 깨 깜짝 발탁도 있었다. 이번 아시안컵부터 최종 명단 인원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김지수(브렌트퍼드), 양현준(셀틱), 박진섭(전북)이 기회를 받게 됐다.



▲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최종명단 발표식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가운데)과 이재성(왼쪽), 조규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클린스만 감독은 "최종 명단에서 늘어난 3명은 한국 축구를 이끌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코치진과 합의하고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정상 등극을 노린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는 한국이지만 아시안컵에선 힘

을 쓰지 못했다. 1956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2연패에 성공했으나 이후 아직 트로피를 품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대회 준우승이 정상 문턱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다.

아시안컵 우승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초부터 최우선으로 내세운 목표다. 그는 "계속 우승을 말하는 건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좋은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김민재가 있고 공격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을 다룰 강력한 경쟁자로 일본과 이란,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라며 "남은 몇 주간 퍼즐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호는 1월 6일 현지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1월 10일엔 결선지 카타르에 입성한다. 한국은 1월 15일 바레인을 시작으로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김주형·임성재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유력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 김주형과 임성재가 2024년 세계 최강 미국골프협회와 맞붙는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프레지던트컵은 2년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이 12명씩 선수를 구성해 맞붙는 단체전이다.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프레지던트컵은 오는 9월 26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골프클럽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터내셔널팀은 내년 8월 26일 발표되는 세계골프랭킹 순위로 6명의 선수를 먼저 뽑고, 나머지 6명은 마이크 워어 단장(캐나다)이 선택한다.

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 임성재(왼쪽)와 김주형. 사진=뉴스1

만. 현지점에서 김주형과 임성재의 출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 중 한 명인 21세의 김주형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벌써 3승을 수확했다. 그리고 2022년 대회에도 출전했다. 세계랭킹 11위로 인터내셔널팀 선발 1순위에 올라 있다.

25세의 임성재는 PGA투어에서 2승을 올렸고, 인터내셔널팀 선발 3순위다. 프레지던트컵에 이미 두 차례나 출전한 경험이 있고 견고한 볼 스트라이킹으로 많은 버디를 낚아 PGA투어에서도 '버디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국내 대회에서는 5타차 역전 우승을 일궈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성적 순위 6위 안에는 호주 교포 이민우도 포함됐다. 이밖에 김시우, 이경훈, 안병훈은 단장의 선택으로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한편, 이들과 맞붙는 미국팀은 PGA투어의 페덱스 랭킹으로 6명을, 짐 퓨릭 단장(미국)의 선택으로 남은 6명을 채운다.

면면 자체가 세계 최강이다. 성적순으로 뽑는 1순위는 세계랭킹 1위 스키티 셰플러다. 셰플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PGA투어에서 6승을 쓸어담아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로 꼽힌다. 이밖에 맥스 호마, 윈덤 클라크, 콜린 모리카와 등이 모두 미국팀에 무난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지던트컵 역대 전적은 12승1무1패로 미국팀의 압도적인 우세다.

임성재는 "미국 선수들을 골프로 쉽게 한다. 우리가 두 번에 보내야 하는 거리를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감각을 유지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주형, 임성재가 주축이 된 인터내셔널팀이 일방적인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3			7	9			5	
2						3	7	
	6		2		4			
				1	9	7		4
	3	4						5
			4		5		2	
						2	1	8
	2	3			7			
4	9		1	6				

	1	낙			2	자	화	자	3	찬	
	4	오	비	5	이	락				조	
6	판	자			글		7	무			
	게		8	시	루		9	진	저	10	리
11	아	지	트			12	정	장			더
				콤			화		13	가	십
14	공				15	인	수	분	해		
16	백	발	백	중					자		